

성가정을 이루어놓은 요한

강 경 신 (베로니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001년 7월14일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인터넷 가톨릭 굿 뉴스에서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병상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던 환자였습니다. 나이는 35세 3남매 중 장남에 미혼이었고 한양공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아빠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당마당을 놀이터로 여길 만큼 성당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사제의 길을 걷길 바라는 이들이 많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0년 11월16일에 부친 성가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9차까지 무사히 항암치료를 마쳤고 호전되는 병세에 희망을 가졌고 머리도 빠지지 않아 너무 좋아하면서 기념으로 머리를 기르겠다면서 예술가처럼 긴 머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무 할일이 많으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고 무리한 운동과 순교자들에게 폭 빠져 밤낮을 모르고 순교자들의 영성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후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 2001년 6월15일 날 입원을 했고 16일 에 항암주사를 맞고 퇴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몇 가지 검사를 더해야 한다며 18일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병세는 악화되고... 가족들은 그동안 위암초기라고 본인에게 속였지만 결국 위암 말기임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환자는 부모님을 위시하여 모든 이들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는 칠년전에 당산

동 성당에서 같이 레지오를 하던 단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자로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몹시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환자의 병세를 듣게 되었고 그 길로 임 선생님을 찾아가 환자에 대해 여쭙보니 아직 호스피스 대상자는 아니라는 말씀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보호자를 찾아가 안심을 시켜 드렸습니다. 보호자는 그 당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눈물을 설새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그만 언제 올었느냐는 듯이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뒤 메일을 통해서 환자에게 제 소개를 하고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점점 병세는 악화되었고 결국 호스피스 환자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환자보다도 보호자를 먼저 마음 정리시켜 드리는게 급선무였고 매일 전화로, 만남으로 접근했습니다. 환자는 호스피스 봉사자를 완강히 거부했고 저의 방문도 별로 달가워 하지 않았지만 매번 엄마를 만나러 왔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만을 주고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을 해보니 혈장 교환을 하는데 지혈이 되지 않아 환의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거즈를 아주 두껍게 환부에 대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의를 갈아 입히려 했으나 너무 힘들다고 갈아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날이 7월13일 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갑자기 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환자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에 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퇴근

을 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서야 환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절 반겼습니다. 봉사자 가운데 보면 괜히 두려워지고 무서워서 거부했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좋아했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갈아 입자고하니깐 순순히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손이 통통 부어 묵주반지가 손가락 사이에 파묻혀 있는데 뺄 생각을 하지 않길래 살살 어린애 다루듯이 다루 겨우 빼낼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 ! 죽음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이 두렵지 않다고...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산동 청년들 모두에게 CD 5장(그레고리안 성가)과 직접 쓴 편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너무 아쉽다고 유언 비슷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굿 뉴스 게시판판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분들에게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라고... 사랑했고 또 영원히 사랑할거라고 전해달라더군요.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기가 더 힘들더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 속에서 사는 것처럼 괴롭더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사시라고(암 말기라고 진작 얘기해 주지 않은 가족들을 원망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초남이 성지에 계시는 김 환철 신부님과 가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후·속편을 집필하고 계신다는데 읽어보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피묻은 쌍 백합이라는 순교서적) 자기는 이론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는 것 같아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봉사자님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속이 후련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길 원했습니다. 한 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티슈 반통은 사용 한 듯).

환자는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느님께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투병할 수 있도록 기회주신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렇게 사랑 하실줄은 몰랐답니다. 사랑을 미리 다 받아서 하늘나라에 못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응석을 부리는 여유로움까지 있었습니다. 환자는 겉으로 무척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보였지만 본인은 이미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파란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답니다.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짜증도 부리고 정을 떼어 보려고 속을 뒤집기도 했대요. 순간 순간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타 놓은 것처럼 너무 여유로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훨훨 날고 싶다고... 마지막 한 말이었습니다.

한참 후 눈꺼풀조차 움직이기 힘들다고. “베로니카 아줌마!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하길래 “그래요, 이제 그만 쉬어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전화로 몇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의식은 없어도 들을 수 있으니 가족들 한사람 한사람씩 작별인사를 하면서 환자가 두렵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서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요. 호스피스 봉사자 특권으로 서슴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고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

다. 가까스로 산소호흡기로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동반하고 당산동성당까지 가늘게 호흡을 하면서 도착했고 정확하게 호흡기를 뗀 시간은 14일 12시2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날 역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그리고 슬피 울어대던 하늘이 본모습을 들어낸 것은 장례미사 때였습니다. 환자가 날고 싶어했던 파란하늘이 뭉개 구름을 동반하고 ○○씨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장례미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안 이○○씨를 떠나 보내기 아쉬워 흐느꼈고 마지막 ○○씨와의 4시간 대화를 신부님께서 목이 메이시면서 낭독해 주셨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친구 신부님이신 배 신부님은 시종일관 흐르는 눈물을 어찌지 못하시고 끝내는 미사도중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다 간 ○○씨가 부러웠습니다. 짧지만 굵게 살다 간 ○○씨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간직되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무신론자였던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동생의 약혼녀가 ○○씨의 영향으로 영세를 받았고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고 신앙 속에서 기도 중에 ○○씨를 만나고 대화하시면서 너무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어머니의 꿈에 ○○씨가 검정수단 같은 옷을 입고 커다란 성서를 가슴에 안은 채 어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더라고요. 주위에는 같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순교자님들이 ○○씨를 맞이하러 나왔나 보라고 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답니다. 보호자들은 신앙 속에서 오늘도 아들을 위해 그리고 주위 고마우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고 있답니다.

